‘디지털 귀향’ 해외 유출 문화재

‘디지털 귀향전, 봄 봄 봄’ 탑골미술관 4월 29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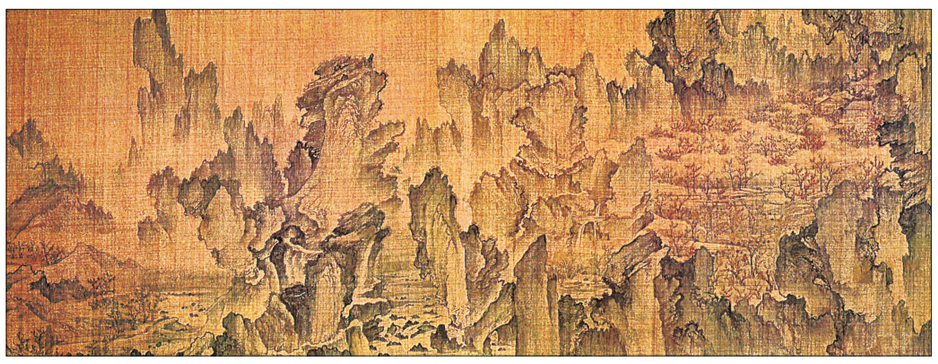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이 3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3년 첫 번째 기획초대전 ‘디지털 귀향전, 봄 봄 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의 쓰임과 향유방식의 다양성을 찾기 위해 (사)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와 협력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디지털 환수’의 의미를 담은 디지털 귀향 전시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원작을 미디어 아트로 생생하게 전하는 이번 전시는 해외로 유출된 22만 9655점(출처-국외소재문화재단)의 문화재 중 (사)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가 미디어아트로 제작한 ‘디지털 몽유도원도(Ultra HD, 7분 15초, 일본 텐리대학 소장)’를 비롯하여 크라우드펀딩으로 새롭게 ‘디지털 귀향’을 진행한 ‘디지털 수월관음도’(미국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소장)를 영인본과 함께 선보이며 국보급 문화재 8점을 선보인다.

더불어 전시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나라 밖 문화재에 대한 향유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15명의 어르신 전시해설가가 작품의 해설과 작품 유출경로, 디지털 작품의 해설 등 전시의 이해를 돕는 도슨트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안견_몽유도원도

수월관음도 등 해외 우리문화재 디지털미디어로 재현
해외유출 문화재 만나는 새로운 방법론, ‘디지털 귀향’

‘디지털 귀향’ 캠페인은 해외 유출 · 소장되어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문화재 원본을 미디어 아트로 선보이는 ‘디지털 환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를 사는 대중과 미래 세대에게 ‘디지털 향유’로 국외 소재 문화재의 가치를 전하고, 더불어 해외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디지털 귀향’을 염원하는 민간 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이다.

탑골미술관 관장 희유 스님은 “이번 해외 문화재 ‘디지털 귀향’을 통해 어르신들과 지역사회가 ‘디지털 향유’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울러 해외에 유출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 귀향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사)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의 남상민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해외유출 문화재의 ‘디지털 환수’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기를 바라며 향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소장 중인 수많은 문화유산도 디지털작품으로 제작하여 보다 다양한 매체로 국민들과 향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소장 수월관음도(세로 113.7㎝, 가로 55.3㎝, 비단에 천연안료와 금)는 관세음보살이 바위 위에 책상다리 자세로 앉아 있고, 그 앞에 버드나무 가지가 꽂힌 정병, 아래 오른쪽에 선재동자가 그려져 있고 배경으로 대나무가 그려져 있다. 화면의 기본 구도는 일반적인 고려 수월관음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아래 왼쪽 부분에 공양자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양자를 그린 고려 수월관음도는 희귀본으로 일본 교토 다이토쿠지(大德寺)에 한 점 더 있는 정도다. 이 그림의 제작 시기는 다이토쿠지 수월관음도보다 늦은 14세기 중반쯤으로 추정한다. 공양자들을 맞이하는 관음보살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부드러운 표정, 그리고 양자의 극적인 만남에서 느껴지는 화면의 긴장감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 수월관음도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 가장 많이 그려진 불화 중 하나로 〈화엄경〉 입법계품에 묘사된 내용을 그린 불화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서쪽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져 흐르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부드러운 향풀이 오른쪽으로 쓸려서 땅에 깔렸는데, 관자재보살이 금강석 위에서 가부하고 앉았고 한량없는 보살들도 보석 위에 앉아서 공경하여 둘러 모셨으며 관자재보살이 대자대비한 법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게 하고 계시었다. 이때 선재동자는 관자재보살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여쭈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사오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거룩한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 중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법을 구하는 장면이다. 관음보살은 선재동자가 28번째로 찾아간 선지식이다. 고려 불화 중 백미로 꼽히는 수월관음도는 제목 그대로 달이 비친 바다 가운데 금강보석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이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불화는 160여 점으로, 그 중 130여 점이 일본에, 20여 점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10여 점이 있다.

큐레이터 설명과 함께 보는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4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4월 19일 개막 18번째 괘불전
‘부처의 뜰-청양 장곡사 괘불’
사유의 방 ‘반가사유상’ 등 다채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오후 6시~9시)에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다. ‘4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상설전시실 곳곳에서 문화유산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된다.

선사고대관에서는 신라실의 ‘함안성산산성 목간-출토, 제작, 보존처리’, 백제실의 ‘고대 구슬의 제작 기법’ 등 문화재의 제작기법에 대한 보존과학 분야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 청동기실의 ‘농경문 청동기’, 가야실의 ‘갑옷으로 보는 고대사’, 신라실의 ‘황남대총, 마립간의 왕권과 무덤’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선사고대의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유의 방

중근세관 고려실의 ‘고려 왕실 이야기’에서는 고려시대 왕실과 관련한 문화재, 정치사적 의미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 조선실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의 양상을 나눈 두 전쟁에 대한 전시 설명이 이어진다.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는 4월 19일에 처음 선보이는 18번째 괘불전 ‘부처의 뜰-청양 장곡사 괘불’의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국보로 지정된 청양 장곡사의 장엄한 괘불을 직접 관람하고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세계문화관에서는 ‘쐐기문자 점토판 속 이야기’, ‘베제클리크 석굴사원의 불교미술’, ‘중국 고대 와당의 특징’ 등이 진행된다. 사유의 방의 ‘반가사유상’, 기증관의 ‘디지털로 만나는 평생도 8폭 병풍’ 등 다채로운 주제의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관련 리플릿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관람정보-전시해설-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 PDF 형태로 제공한다.

박재완 기자

대원사 티벳박물관 인도세밀화 특별전

기획전시실 9월 30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은 4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인도세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원사 티벳박물관 관장인 현장 스님이 그동안 인도여행을 통해 수집한 인도세밀화를 선보인다.

‘인도세밀화’는 인도 대륙이나 페르시아에서 발생한 독특한 회화양식으로 세밀한 그림이라고 하여 영어로는 ‘Indian Miniature Painting’이라고 한다. 인도세밀화는 예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 왕조의 비호 아래 대량으로 조직된 화가들에 의해서 인도의 신화와 역사, 설화, 영웅담, 궁전의 다양한 볼거리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생동감 넘치는 표현과 함께 당시의 풍속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종교의 특색 있는 존재에 대한 통찰과 그들이 형상화하고 싶은 신들의 모습, 우주의 모습, 신화적 장면들이 정교한 배치를 이루며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어 동양화나 서양화에서 느낄 수 없는 세밀화의 기법과 독특한 미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인간의 문명은 기후와 풍토, 주변의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해 왔다. 세계 곳곳의 인종의 성향과 문화배경이 다르듯이 예술의 한 장르인 회화양식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독특하고 화려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의 문화양식은 인류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도세밀화 역시 세계회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세밀화

박재완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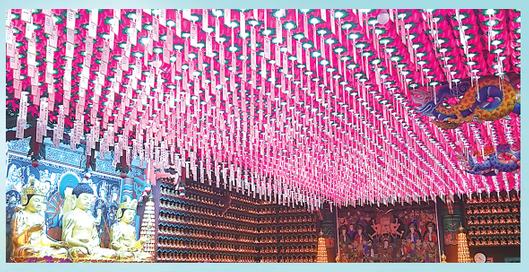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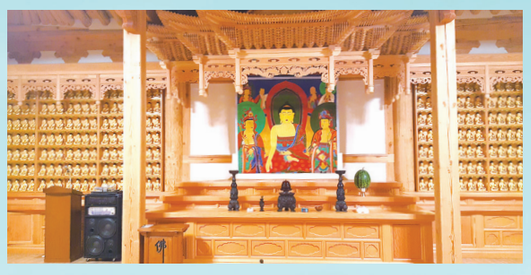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